금주의 법구–〈잡보장경〉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4월 11일)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조계종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 증명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만년정토 위한 '화합' 백만등불 밝히자"

조계사 등 전국 사찰, 불기 2563년 봉축법요식 봉행

與野 대표 등 정치인 대거 참석
사부대중 1만여 명 운집해 축하
故김용균 모친 등 초청해 헌화도
文 "자비심으로 南北평화 이루길"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심을 찬탄하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사부대중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연등을 밝힐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해 불심(佛心)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아울러 봉축법요식에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故황유미 아버지 황상기 씨,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 이영문 · 윤미자 씨, 나눔의집 이옥선 할머니가 초청돼 헌화를 하는 등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文 대통령 올해도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처님오신날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나라의 위기 때마다 한국불교가 극복의 원동력이 됐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봉축메시지에서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에는 불교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법정사 · 범어사 · 동화사 · 대흥사 · 화엄사 · 김룡사 등은 독립운동 확산의 전진기지였다. 나라의 위기마다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며 등불이 된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가 보여준 화합의 정신은 깊은 울림을 준다. 불교의 화쟁 사상과 원융회통 사상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족 · 지역 · 성별 ·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의 원력이 실현되길 바라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남북이 평화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 "自性 밝히길"

봉축법요식의 증명법사로 사자좌에 오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불자와 국민들이 자성(自性)을 밝힐 것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지구촌 곳곳은 배타적 종교와 극단적 이념으로 테러와 분쟁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원한과 보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류는 개개인 스스로가 바깥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자성을 밝혀야 한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원래 옳고 그름이 없다"고 설했다.

이어 "누구라도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 없어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온 인류가 한 가족이요, 온 우주가 한 몸이 된다. 그리하면 처처(處處)가 극락정토요, 물물(物物)이 화장세계"라면서 "모든 불자와 국민, 그리고 인류가 참나를 밝히는 수행으로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축사에서 화합의 원력과 실천을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스님은 봉축사에서 "화쟁(和諍)이라는 장명등(長明燈)을 마당에 켜놓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 온 우리 민족은 5천년동안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면서 "삶이 힘들고 험난할 때마다 일심으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니, 이제 만년의 정토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은 화합(和合)이라는 백만등불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합은 우리를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편안함을 만드는 출발점이요, 종착점"이라며 "쉼 없이 정진하면서 백만원력이라는 등불로 우리 국토를 환하게 밝히자"고 서원했다.

법요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끝으로 발원문을 낭독하며 소외된 이웃과 편견으로 고통받은 중생들을 내 몸같이 여기며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요식에서는 불교 홍포에 공헌을 한 불자들을 시상하는 불자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 이현세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 김병주 前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방송인 전원주 씨가 선정됐다.

"파송 규율 미준수 전역처리 적법하다"

前 군승 박 씨 취소 소송 서울고법 항소 기각 판결

군종장교로서 파송주체 종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를 어겨 승적 박탈 및 품위를 실추한 전직 군승에 대한 전역처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최근 전직 군승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하고도 사실을 숨겼다가 승적이 박탈돼 장교 품위를 실추했고 제적 처분 직후 태고종으로 종단을 옮기는 등 신의없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춰볼 때 군(軍)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방부의 전역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4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직 군승 박 모씨는 결혼으로 지난 2015년 조계종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017년 국방부 군종윤리위에서의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으로 전역조치 됐다. 이에 박 모씨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인 김 모씨의 경우 독신 예외조항이 제거된 2009년 조계종 종헌 개

"현 군불교의식 조계종 통일, 종교활동 업무 수행도 불가"

정 이전 사실혼 관계의 인정과 조계종 승적 박탈을 이유로 군종장교 전역조치는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현재 국방부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모씨의 경우 김 모씨와 달리 2009년 종헌 개정 이전 사실혼 관계 형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과 종헌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조계종 승려 자격 박탈인 2015년까지 혼인사실은닉한 부분이 이번 항소 기각의 주요 사유가 됐다.

특히 법원은 4년간 혼인사실을 숨기고 군승 신분 유지를 위해 종단을 바꾸는 것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승적이 없는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은 "국방부는 조계종만을 군종 병적 편입 종교로 선정했으며, 모든 군 사찰들은 조계종 군종교구에 등록돼 있다"며 "군종 장교의 주된 업무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국방부 판단은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줬다. 노덕현 기자

다음 주 신문 휴간합니다.

65세 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 인 사서실장 : 천 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흥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돈암동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511-2028 총무원장실 : 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 samhwade@hanmail.net